

<선악의 탄생>  
\*체리, 대호, 상일

그것은 모두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다. 착각에서 비롯된 건 더 이상 실수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 이건 오로지 내 책임이다. 하지만 누군가 내가 착각하도록 의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기획된 것이라면?

“박 팀장, 이제 그 팀장 자리에서도 내려와야겠네?”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겁이 난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차라리 저렇게 처음부터 나에게 낯을 세우던 사람들이 더 믿음직해 보일 지경이다.

\*

박 팀장이 소속된 팀원은 입사한 지 2개월 된 신입 류시원을 포함해 박 팀장 밑으로 3년 차, 2년 차 대리 두 명이 함께 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실수한 거야... 신입 그 녀석 입력하라고 했던 코드 제대로 입력한 거 맞아? 이 대리, 옴 대리, 두 사람 모두 신입 류시원이 쓴 코드 확인해 봐.”

박 팀장은 화들짝 놀라 일을 수습하려 하였다. 지금의 ‘운명 시스템코딩’은 관리자의 아스키 코드에 따라 실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팀장의 팀은 속세의 선(善)함으로 등급을 나눠 그중 상위 4%에 해당하는 착한 사람들의 운명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박 팀장 손에 들린 파일은 상위 4%를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이런 일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영문을 알 수 없던 박 팀장은 화들짝 놀라 류시원의 코드를 확인하게끔 하게 한 것이다. 옴 대리가 류시원의 자리에서 코드를 찾아 검색하는 순간 화가 났다. 선함 정도를 측정하는 퍼센테이지의 설정 범위가 4.3%로 설정되어 있던 것이다.

누군가가 분명 악의를 가지고 우리 팀의 코드를 수정한 것이 확실하다. 0.3%의 사람들이 조금 더 선하다고 칭하게 되면, 기존에 선하다 했던 사람들은 1등급에서 탈락하여 내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업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내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일부러’ 일으킬 사람이 있을까? 그렇다면 분명 이런 오류로 수혜받을 사람일 것이다.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류시원. 류시원이 일부러 그랬다.

\*

류시원은 신입이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류시원은 재벌 3세 중 드물게 내세에서 4.1%의 선함을 지니고 있었고, 이 정도면 높은 편임에도 이상하게 류시원은 더 높은 선함을 원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잘 없다. 그래서 기부 행사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나 아스키코드도 만만하진 않아서, 진심을 다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었기에 류시원의 등급은 늘 1등급일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은 아스키코드의 선택을 받으시겠다 이젠가”

사실 지난 아스키코드가 운영된 지 20년 동안 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시행 2년 차에 아스키코드를 관리하던 관리직원 중 하나가 본인의 가족들을 운명 시스템에 집어넣

기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범위 조작을 했던 적이 있다. 물론 그 관리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도 영혼소멸형에 당했다. 박 팀장은 류시원 사원을 불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추궁했다.

“류시원, 방금 자체적으로 운명 시스템 코드를 확인해 봤네.”

“....”

“자네 직접적으로 아스키코드를 수정했나?”

“....”

“아스키코드 수정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르나? 자네의 영혼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일이야.”

“박 팀장님,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아스키코드에 접속한 사람이 자네밖에 없는데, 변명 그만하게.”

류시원은 결국 그날 이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다행히도 아직은 살아있기에 영혼소멸형을 당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죽고 나면 추모도 의미 없어지겠지. 그러나 그때 알았어야 했다. 그것은 모두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란 걸.

\*

내일은 류시원이 복귀하는 날이다, 그동안 ‘운명 시스템’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 팀장 팀의 팀원들은 아스키코드에 접속제한이 걸렸고, 선함 퍼센테이지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 관리자만 가능해졌다.

“나는 정말 아닌데... 내일 출근하게 된다면 아스키코드 접속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어.”

이번은 류시원의 그릇된 생각으로 일어났다. 류시원은 사실 정말로 아스키코드를 수정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류시원은 박 팀장의 단정적 단어 사용과 분노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하여 그는 직접적으로 아스키코드를 디버깅하고자 하였고 범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스키코드에 접속하는 순간 비상 알람이 울렸고, 시스템 관리자들이 그를 체포하였다. 그의 영혼은 소멸의 대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훗날 박 팀장은 이렇게 회상하였다.

‘류시퍼... 그의 탄생이 내 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

생각해보면 그랬다. 이런 실수가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왜 본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걸까? 간단히 신입사원의 접근만 막아도 되는 일이었는 걸. 이렇게 회상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래, 박 팀장, 인사과로 끌려가는 기분은 어때?”

“아까부터 종알종알 시끄럽네. 좀 닥쳐.”

“조사 잘 받아.”

조사라고 해봤자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되었다.

조사실 내부는 최고 관리자 중 심판담당자와 박 팀장 둘 사이의 냉랭한 기운만 돌고있었다.

“박 팀장, 류 사원의 영혼소멸이 3시간 후면 진행돼. 팀을 꾸리면서 신입 하나 관리하지도 못하다니, 프로답지 못하게. 좌천되어서 쥐 죽은 듯이 시키는 일만 하라고, 더 이상 눈밖에 하지 않게.”

말을 마친 최고 관리자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웃었다. 3시간 후, 영혼소멸실에 들어간 류시원의 영혼이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동안 울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야 왜 저래, 류시원 저놈, 영혼이 너무 흔들리는데? 강도를 높여 신체와 빠르게 분리 시

키라고!!”

“난 억울해, 내가 아니란 말야! 상층부에 누군가가… 분명 누가 있어!”

그의 영혼이 요동치고 있었다. 전례에 일어난 적 없는 현상이었다. 영혼 분쇄기가 최대한의 힘으로 치솟았을 때, 하늘에서 광채가 내려왔다. 오직 4% 해당하는 선한 사람들이 이생을 끝냈을 때만 나타나는 ‘성인세례’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영혼은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역사상 유례없던 현상이 겹치자. 류시원의 눈동자와 신체는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오히려 영혼 분쇄기에서 파괴의 소리만이 울리게 되었다.

“나… 나만 믿어 줘어도…”

“으아아아아아아!”

영혼 분쇄기가 파쇄되고 핏빛의 성인만이 서 있었다. 류시퍼 그가 탄생한 것이다.

그의 탄생 이후 속세에서는 악마라는 존재가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선악의 탄생이었다.